

<서식 1> 비대면용

## 의료봉사활동 계획서(조별)

지도교수	학과장

( 21 ) 조 조원명단	심재원, 이윤재, 노광욱 김강현, 유지원			
활동기간	2021년 9월 21일 ~ 2021년 12월 11일 봉사활동 시간 : 총 ( 30 )시간			
봉사 방법	카드 뉴스 제작 후 포스터로 편집			
	담당자	잘못 알려진 의학 지식 바로 알기	담당자 연락처	
	시작(개시) 일시	2021년 10월 8일		
활동장소	비대면			
활동내용	<p>카드 뉴스 제작, 추후 포스터(혹은 영상)으로 편집하여 홍보(sns게시) →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지식(상식)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 →각 조원이 주제(1개 이상)를 맡아서 잘못 알려진 의학 지식과 이를 바로 알리는 내용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계획 수립 및 주제 선정은 비대면 토의로 진행(2시간)</li><li>▶ 봉사 시간 : 카드 뉴스 제작(15시간), 포스터 제작(15시간)</li><li>▶ 봉사 형식 : 대면 혹은 비대면 혼합 조별 모임</li><li>▶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조원이 찾은 주제 예시</li></ul> <p>-전자기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상식 WHO IARC에서 전자파를 2B 발암물질로 지정했지만, 2B 그룹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커피도 포함돼있는 등 실제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음. 또한 역학 연구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인과를 수십년간 찾지 못했음.</p> <p>-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상식 실제 시력의 저하와 큰 상관이 없음. 시력은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.</p> <p>-눈 밑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상식 눈 밑 떨림이 생긴 경우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,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. 주요 원인은 피로와 카페인 섭취인 경우가 대부분</p> <p>-하루에 물 8잔 마시기 / 2L 마시기 등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상식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수분대사 능력과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음. 자신의 키와 체중을</p>			

	<p>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본인에게 필요한 수분량이 나오는데 이또한 음식을 통해 보충 가능한 수분이 포함된 양임.</p>
<p>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2021년 10월 7일</p> <p>제출자 명단</p> <p> <span style="margin-right: 100px;">_____심재원_____ (인)</span> <span style="margin-right: 100px;">_____이윤재_____ (인)</span> </p> <p> <span style="margin-right: 100px;">_____김강현_____ (인)</span> <span style="margin-right: 100px;">_____노광옥_____ (인)</span> <span style="margin-right: 100px;">_____유지원_____ (인)</span> </p>	